

교회 목표

신령한 예배
찬구 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충현

최경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발행처: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영혼을 건지는 열심을 나에게도 주소서!

지난 여름 충현의 성도님들은 분주했습니다. 더위를 피해 산과 바다로 가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지로 나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기에 가능한 성령님의 역사였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순종으로 인해서 이미 2008년에만 1천여 명이 넘는 성도님들이 복음의 불모지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수일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여건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영혼구원의 사명에 순종한 믿음의 종들을 향해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이다”(마 25:23)

충현교회 선교의 전환점이었던 11년 전부터 시작된 단기선교는 무려 1만 2천여 명의 단기선교사를 파송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단 한번도 복음을 접해 보지 못한 나라의 지역을 중심으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현지인들의 냉담한 반응은 물론이고 적대적인 행동과 현지 경찰들의 단속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기 예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성령님이 주신 영혼을 건지는 진도자들의 열심을 막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외면하는 현지인들을 향해 눈물로 기도하였고, 단속을 하는 경찰들 앞에서도 담대하였습니다. 상황이 어려울수록 자기를 부인하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었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뿐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과 발걸음을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실 그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선교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지금도 복음을 애가계 기다리는 영혼들이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줄 터전 줄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바로 우리입니다. 지체하지 마십시오. 천사도 돕모하는 복음전과 사역에 적극적인 믿음의 실천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용납하시는 은총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질문이 있다. “죄가 완전히 제거되었다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대답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롬 6:1,15)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또 우리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라면 이 질문이야말로 미련한 질문이다. (벧전 2:9)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 사용되는 가슴 벅찬 삶이다. (고 10:1)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참 생명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사로잡혀서 진리를 깨닫지 못한 채 죄를 반복하고 있으며, 설교나 성경공부도 죄를 짓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말씀과 삶 (금요찬양집외)

12. 종의 멍에를 벗어났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 우리 삶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생명은 매일 그의 실재를 체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실천적인 생명이다. (요 17:3) 참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실질적인 우리의 목표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풍성함을 알게 될 때에 적는 그 영향력을 알게 된다. 주께서 우리 앞에 진수생산을 베풀어 주셨건만 오히려 쓰레기통을 찾다니며 배를 채우려는 자들이 아주 많다. 이들을 향하여 쓰레기통을 찾지 말라고만 가르치는 기독교의 가르침이 오늘날 큰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율법을 이용하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는 증거이다. (고전 15:56)

율법은 우리들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도록 막지 못할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죄를 짓게 한다. (롬 7:7-8) 그리스도인들로 율법적인 삶을 살게 하면 할수록 그들 안에 있는 반항적인 욕망을 더 충동시킨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 23:25,27-28) 바리새인들은 율법이 가장 옳다고 주장했지만 성경은 믿음을 강조한다. (히 11:6; 롬 14:23) 또한 율법에 대하여도 아주 분명하게 믿음과 어떠한 구별이 있는가를 설명해 준다. (갈 3:12)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강박한 사람은 율법주의자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율법이 충분하지 못하여, 수백 가지의 더 많은 규정을 만들어 썼다. 둘레를 뿜는 것은 안식일에 허용되었으나 흙에 침을 뱉는 것은 금지되었다. 왜냐하면 흙에 떨어진 침

이 흙으로 일하게 만들기 때문이었다. (요 9:14-16) 예수님은 저들의 율법적인 행동의 어리석음을 의식적으로 드러내셨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정죄하였다. (요 9:24) 이것은 정확한 율법 아래 의 현상이다. 어떤 규정이나 법칙에 항상 이유가 있고 정당성이 있게 마련이나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골 2:23) 율법은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누구의 마음도 전혀 바꾸어 줄 수가 없다. (롬 7:15,21-23) 더 간절하게 율법을 잘 지켜보려는 자들에게 율법은 더 잔인하다. (롬 7:24) 필요한 것을 채워 줄 수는 없지만 원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리어야 한다. (롬 7:25; 갈 3:25)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하여 곤고한 자임을 알고 율법이 아닌 오직 은혜로 구원받을을 알아야 한다. 참된 원수는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의 요구를 완성시킬 수 없는 것임을 확실하게 이해하기 전까지는 주께서 주시는 참 생명의 길을 위하여 율법을 내려놓을 수가 없다. 그로 인해 공포, 죄의식, 죄절감, 두려움에 갇힐 된다. 율법 아래 있을 때에 우리는 위장자가 된다. 율법에 매인 삶의 극단적인 결과는 극심한 반항심을 만들어 낸다. 성취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반항하며 마침내는 지금까지 믿고 수고하던 대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는 순간 내 모습 그대로의 내 자신이 수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를 선포하며 자신을 율법(종의 멍에) 아래 두어서는 안 된다. (갈 5:1; 행 15:10)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와 연합하여 얻는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율법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시러 오셨다. (마 11:28-30; 갈 5:2-3)

아무도 율법 전체를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없다. 그저 자기가 집어낸 것, 좋아 하는 것들을 꼭 붙들고 있을 뿐이다. 바울은 율법 아래에 있든지 아니면 은혜 안에 있든지 둘 중의 하나이지 둘을 섞을 수가 없음을 강조한다. 율법 하나가 모든 은혜를 망치게 한다. (갈 5:9) 사도 바울은 율법과 은혜의 논쟁을 갈라다서 5:4 말씀으로 끝을 낸다. 죄를 많이 범하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그리스도인을 헐바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은혜에서 떨어진다.”라는 표현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과는 상관없다. 이 말들은 은혜로 법의 자유에서 떨어져 다시금 율법의 멍에를 매는 종의 생활로 돌아감을 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가정의 한 구성원이 된 믿음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늘 붙들기를 원한다. 아멘.

THE SIGNS

*Then some of the scribes and Pharisees said to Him,
 “Teacher, we want to see a sign from You.”
 (Matthew 12:38)*

The scribes and Pharisees came to Jesus seeking signs. Not only them, but God's chosen people too. "The Jews then answered and said to Him, 'What sign do You show us as your authority for doing these things.'"(Jn. 2:18) Even Jesus' own disciples asked Him for a sign, "As He was sitting on the Mount of Olives, the disciples came to Him privately, saying, 'Tell us, when will these things happen, and what will be the sign of Your coming, and of the end of the age?'"(Mt. 24:3) Today's Christians also have trouble believing the Word of God. They want something more even though God's Word gives them what they need. The Bible gives many signs concerning the Messiah that only Jesus Christ fulfilled. So that everyone can know that Jesus Christ is the Messiah, our Savior, I need only mention three.

God prophesized the virgin birth of the coming Christ,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a virgin will be with child and bear a son, and she will call His name Immanuel."(Is. 7:14) This prophecy came true, as explained by the angel Gabriel to the Virgin Mary, "And behold,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shall name Him Jesus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and for that reason the holy Child shall be called the Son of God."(Lk. 1:31, 35) Jesus was born to the Virgin Mary as a human child without sin. This was a real sign, but people do not want to really believe in Jesus. They still keep asking God for other signs. What more do you need?

God prophesized the death and burial of Christ. Jesus told the scribes and Pharisees, "An evil and adulterous generation craves for a sign; and yet no sign will be given to it but the sign of Jonah the prophet; for just as Jonah was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belly of the sea monster, so will the Son of Man be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the heart of the earth."(Mt. 12:39-40) Jonah fled from God and was caught in a violent storm upon the sea. He told the other sailors to throw him overboard, so that they might live. He was willing to sacrifice himself to save others. Christ gave His life for others to have eternal life. Jonah was swallowed by a great

fish and spent three days and three nights in its stomach before being cast out. This scenario pictured Christ's death and burial. The death of Christ for sinners was fulfilled as given in Isaiah 53:5,10~11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But the Lord was pleased to crush Him, putting Him to grief; if He would render Himself as a guilt offering. He will see His offspring, He will prolong His days, and the good pleasure of the Lord will prosper in His hand. As a result of the anguish of His soul, He will see it and be satisfied; by His knowledge the Righteous One, My Servant, will justify the many, as He will bear their iniquities." This was another powerful sign! Do you really need more?

God prophesized the bodily resurrection of Christ. When Jesus chased the money changers out of the Temple, He told God's people,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Jn. 2:19) They knew that the Temple took forty-six years to build and could not understand how Jesus could rebuild it in three days, "But He was speaking of the temple of His body. So when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which Jesus had spoken."(Jn. 2:21~22) This was a real sign.

The birth, death, and resurrection, these three signs, reveal the Savior, Messiah. Jesus Christ's fulfillment of them guarantees our salvation. He is now preparing our eternal home and will return soon to take us there, but that sign has not yet been fulfilled. We already know that He came to us through the Virgin Mary, was crucified on our behalf, and is our Risen Savior. What more do you need as a sign? Why do so many keep praying and asking God to show them miracles when the greatest of miracles has already happened. Please start focusing on Jesus Christ. It is so easy to get side tracked, like the religious scholars, chosen people of Israel, and Christ's disciples. All you need in this life is Jesus. He is real and He will lead you to God's kingdom, where you can live with Him eternally. Amen. 🙏

표적

그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마태복음 12:38)



김성관 목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그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도 표적을 구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요 2:18)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습니다. “예수께서 감람 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마 24:3)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지만 그들은 그 이상의 것을 원합니다.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많은 표적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시며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세 가지 사실만 살펴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동정녀의 몸에서 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처녀의 몸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사 7:14) 이 예언은 천사 가브리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한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눅 1:31,35)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한 인간의 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표적이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다른 표적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 어떤 표적이 더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시며 장사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에 대해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배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마 12:39~40) 하나님의 낮을 피해 도망갔던 요나는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는 선원들에게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고 말했습니다. 그것만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가까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습니다. 요나는 큰 물고기

에게 삼켜진 채 풀려나기까지 사흘 밤낮을 물고기 배속에서 지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사흘 동안 무덤 속에 있을 것에 대해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사야 53:5, 10~11에 예언된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이것은 또 하나의 확실한 표적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정말로 더 필요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부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시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요 2:19) 그들은 성전을 짓기까지 46년이 걸렸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성전을 다시 짓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요 2:21~22) 이것이 진짜 표적이었습니다.

탄생, 죽음, 부활, 이 세 가지 표적은 구세주 메시아에 대해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 표적을 성취하심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집을 예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그곳에 데려가기 위해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표적은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다시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기적들이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거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십시오. 종교인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아주 쉽게 중심에서 벗어나 버립니다.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 ■

수요1부예배 메시지(2008. 9. 17.)

네 하나님 여호와

(진명기 4:24)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무거운 짐에 눌려 사는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데 이것만을 강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보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은 사랑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죽음을 앞둔 마지막 설교에서 모세는 밝혔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신 4:24) 모세는 '네 하나님 여호와'라는 구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강조하였다. 이렇게 강조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매번 잊었기 때문이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은총 그 자체였다. 출애굽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홍해도하, 만나와 메추라기, 생수, 구름·불기둥에 이르기까지 은총의 연속이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섬기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있었다. 자신에게 우익이 되는가에 따라 매번 그들의 주인은 바뀌었다.(마 6:24)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은 좁은 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좁고 험한 이 문보다는 멸망으로 넓게 열린 문으로 간다.(마 7:13-14) 이것이 은총을 입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의 모습이다. 이 모습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입니다.(출 20:3)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용서하지 않았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은 세상을 더 의지하였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셨다.(시 78:21~22,31)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범죄하였다. 환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반복해서 시험하였다.(시 78:32,41)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혹하였다.(시 78:62~64) 결국 여호와와의 길짐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의 이스라엘인 제자 세대가 들어가지 못하였다. 은총을 입은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공존한다.(롬 7:22~23) 우리가 하나님의 법에 전적으로 따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심판하실 것이다.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렁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게게 하였으며'(베포주 2:4) 가듯 유다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모비적인 제자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기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다.(행 1:25) 그의 종말은 끔찍하였다. 불신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영원한 고

통뿐이다.(요 15:2,6) 하나님은 제양의 천사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실 것이다.(시 78:49)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때 천사라도 용서받지 못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적악으로 가득한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았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다. 그들의 관습은 오직 세상 안에서의 쾌락이었다. 소돔과 고모라 성안의 사람들은 마찬가지였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공의의 심판을 내리셨다.(베포주 2:5~6) 사람들의 마음이 온통 죄로 가득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창 6:5) 분명 이들에게 기회가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회개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하나님이 일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롬 11:21~22)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옛 세상은 용서받지 못했다.

그의 아들도 용서하지 않았다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를 위해서 그의 아들도 용서하지 않았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했느냐'(롬 8:32) 무죄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 이유는 순전히 우리의 죄 때문이다. '그는 실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여야 한다.(고전 10:10, 12) 주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의 초점은 천국에 있어야 한다.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믿음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요 3:18)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총이고 회개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세상을 향해 가던 길에서 돌이키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사 55:7)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자신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의 공로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의 공로가 크다 할지라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요일 1:9)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며 질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회개할 때 우리를 만아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보내주신 대속의 제물이신 예수님을 믿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된다.(고후 5:17)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십시오!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자. 아멘.

마가복음 강해 37

* 매우 중요해지기요! 사탄 440여에서 생생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허무한 전통, 예식, 축제 그리고 역사 (7:1-13)

이스라엘 백성은 바르고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였기에 많은 전통과 예식을 만들었고, 역사를 기리며서 축제를 벌였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구원을 얻고 평화를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전통과 예식은 하나님의 구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영원의 삶과는 관계 없었다. 모든 전통과 예식은 허무하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것을 명료하게 지적하셨다.

모든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전통이 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 몇 사람이 이 전통을 버렸다.(마 7:2) 이것을 빌미로 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였다.(마 7:5) 예수님은 즉시 이사가 선지자의 예언(사 29:13)을 인용하여 그들을 향하여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 7:6)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지적하셨던 것이다. 세례 요한도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외치며 그들의 외식을 지적하였다.(마 3:7~10) 그리스도에게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의 실상을 알았기 때문이다.(요 1:19) 당시 종교인들의 관습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율법이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덧붙여 만든 전통과 예식의 준수 여부에만 관심이 있었다.

선민이라는 교만이 이스라엘을 병들게 하였다. 영적 눈을 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 채 지의로 해석한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였다. 허무한 전통, 예식, 축제, 역사를 만들어서 '이것이 답이다!'라고 다른 사람들마저 속였다. '그와 있을진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마 23:13)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시인할 뿐 행위로만 부인하고 불순종하는 악인들이었다.(딤후 1:16) 인간이 만들어 놓은 허무한 전통과 예식을 버리자. 이것을 통해서만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영원과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모든 전통과 예식을 준수할지라도 최인은 죄인일 뿐이다.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보배로운 피체이다.(베포전 1:18~19)

자신은 점점 작아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커져야 한다. 전통을 우선할 때 십자가는 작아진다. 하나님을 회회이 경배하게 된다.(마 7:7~8) 예수님이 영원의 세계로 열린 유일한 길, 진리, 생명이시다.(요 14:6) 지극히 간단하고 단순하지 않은가! 전통이 우리의 초점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 진리이신 주님의 말씀이 유일한 초점이어야 한다.(요 17:17) 매순간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하여야.(딤후 4:2) 바울은 권고하였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아 주의 하나님과 이것은 사탄의 전통과 세상의 초자연체를 따를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미 아니하랴'(골 2:8)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전통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을 무시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고 있지 않은가?(마 7:9,13) 더럽게 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에도 깨끗하게 만들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잊지 말라. 모든 계명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있다.(요일 3:23 ; 요 13:33~34)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버려느냐'(마 15:3)라는 말씀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자. 십자가를 통해서 종의 명예가 꽃필진간 또 다시 명예를 매며 참 자기를 포기하기를 대서 돌이키자.(갈 5:1) 인간이 만든 모든 허무한 전통, 예식, 축제, 역사를 버리자.(골 2:20) 전통과 예식을 지키며 역사를 기리는 축제에만 초점이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다. 진실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르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인생의 허무한 것 앞에 서지 말고 십자가 앞에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라.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쏠렸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찬 423장) 아멘.

눈물의 기도

너무나도 연약한 믿음을 가진 내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선교지가 전해진 후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어 막상 출발 날짜가 다가오니 주님께 최후한 생각도 들고 또 웬지 두려운 생각도 들었습니다. 돌아보니 이번 선교 훈련기간 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너무 소홀했습니다. 금요찬양집회에서 파송기도를 받는데 눈물이 겹겹을 수 없이 흘렀다. 회개와 감사와 다짐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사역지에 도착하여 보니 숙소와 차량, 그리고 날씨마저도 주님께서 모두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계속 비가 왔지만 우리는 무조건 사역지로 출발했다. 도착할 때쯤 되면 비가 멈추어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셨고, 점심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가면 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발걸음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일에는 운전기사 가족과 숙소의 직원 몇 분과 함께 주일예배를 드렸습니다. 장남이 기사가 가족과 함께 오겠다고 약속을 했기에 우리는 예배를 위하여 늦은 밤까지 준비를 했다. 팀장님은 설교준비를, 한 사람은 영어통역을, 나는 현지어통역을, 또 한 사람은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밤이 늦도록 연습하는데 정말 감동이었다. 한 영혼을 위한 믿음의 열심을 보고 깨실 주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기뻐했다.

숙소를 오가던 길에 보이던 다리 밑에 빈민촌이 있었다. 자꾸에 가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연일 내리는 빗속을 헤치며 그 더러운 곳에 가기가 두려워 모두들 망설이고 있었다. 그러나 성령님은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셨다. 주일예배를 드린 후 오후사역을 가개로 동네로 나가기로 했는데 휴일이어서 주변의 공장들이 문을 닫아 사람들이 없었다. 우리의 발걸음은 조금 떨어진 그 빈민촌을 향하게 되었다. 우리는 열심히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 외에는 우리를 구원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라고 전했다. 아이들은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따라하며 눈을 반짝였다. 반복해서 찬양을 따라부르게 하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이들을 꼭 구원해달라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아무도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다. 모두 울면서 기도하며 걸고 있을 뿐이었다.

황경분(집사, 2교구 4지역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침담들이 어디에 표현되는 말인가? 말문이 막힌다는 말이 무엇인가? 사역지에서 나의 상태는 무어라 감히 표현할 수가 없었다. 찢어지는 가슴을 안고 흐르는 눈물 속에서 주님께서는 '왜 나를 이 땅에 보내 주셨는가?'를 다시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아침마다 말씀을 주셨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하심을 알게 해 주셨다. 말씀이 욕심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주님을 보여주셨다. 철저히해 주님께서 천지의 영혼들을 사랑하심을 알게 해 주셨다.

가슴속에서의 뜨거운 외침으로 고백하며 귀하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렸다. 누구인지 모르는 저 영혼들, 하얀 물방에 간장으로만 밥을 먹던 아이들, 병든 할아버지와 할머니까지 주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그대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다. 금과 은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게 해 주신 주님께..... 하루하루의 사역을 통하여 저들의 가슴 속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심겨지기를 간절히 마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며 올려 드렸을 때 귀하신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물도 닦아 주시며 아무만저 주셨다.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저들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길 간절히 기도했다. 이제 주님은 오방미인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법을 통해서 저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결코 인간적인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영적인 주님의 계획 안에서 저들에게 믿음이 자라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또한 주님께서서는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다. 약속의 주님 안에서 확신 가운데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현재의 영혼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주님의 방법을 통해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린다.

윤선진(집사, 12교구 2지역팀)

정말 아름답다!

지금 이곳은 우기이다. 한 번씩 비가 내릴 때마다 정말 무서운 정도로 내렸다.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이런 생활에 익숙해서인지 비가 와도 거의 반응이 없다. 이곳에 와서 예수님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방학이어서 어린이들은 거의 집에 있었다. 마을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웅기흥기 모여 있고, 어른들은 대부분 오락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었다. 아이들을 불러서 같이 찬양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생경숙 웃으면서 예수님을 들어보았다고 했다. 그래서인지 우리를 형제처럼 반기는 것 같았다.

이번 사역은 거의 축조전도로 이루어졌다. 많은 아이들이 복음으로 성장한다면 많잖아 복음의 나라로 변할 것이다. 밝은 미소로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 모든 대원들이 지칠 줄 모르는 것도 이 아이들의 미소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 아이들을 주님의 복음으로 늘 양육하시어 주님이 뜻하시는 나라로 세우시기를 간구하면서 우리는 발걸음을 옮겼다. 이 나라에 더 많은 선교사들이 양육되길 기도하면서 사역을 마쳤다.

김정임(집사, 6교구 1지역팀)

선교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였습니다!



2000년 전 옛세 마태 동산에서 눈물로 기도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눈물로 기도하시고 계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피폐한 영혼을 보지 못하고 열광하고 굶주린 욕심에 마음 아파하는 나의 모습에 예수님은 또 다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교를 위해 준비하고 기도하며 "이 땅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나에게 "이 땅을 위해 함께 눈물을 흘리자."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교는 의무나 책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녀의 권세였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그 곳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 주셨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곳에서 여전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복음 증언하는 길은 천국을 향하는 기쁨의 길이었습니다.

어지랄 바 몰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우리의 사역이었지만 어느새 두렵고 떨리는 마음은 기쁨과 감사로 변하였습니다. 집집마다 놓여진 우상의 신전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찢어진 전도지가 널려진 골터에는 시몬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며,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던 그 영혼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실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증인으로 부르시고 세워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최지은(집사, 12교구 2지역팀)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1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8일(월)~9월 16일(화)	11교구 5지역	김영록

현재 지역중인 선교팀 (3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15일(월)~9월 23일(화)	16교구 6지역	박성명
9월 16일(화)~9월 24일(수)	17교구 8지역	박찬욱
9월 18일(목)~9월 26일(금)	8교구 1지역	이기욱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2개 팀)

기간	팀	팀장
9월 22일(월)~9월 30일(화)	1교구 5지역	구원섭
9월 25일(목)~10월 3일(금)	1교구 1지역	이승득

넌 참으로 특별한 아이란다



"넌 참으로 특별한 아이야. 넌 소중
한 아이란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기쁨의 감격으로 울지 않을
성도가 있을까요? 몸에 '별점' (검은
별)이 붙어서 놀림받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별점이 어느새 다 떨어지
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아이, 바로 성극의 내용이라합
니다. '별점'이란 내가 신경쓰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 어느
순간 떨어져서 더 이상 붙지
않는 '검은 별'입니다. "이런
기분 처음이야! 예수님! 나,
예수님 믿을게요." 이 성극 속
의 대사는 마치 제 자신이 주
님께 부름받아 나아간 사람
의 순간이었습시다.

"그리스도의 교회에 부흥을 주소서"(함 3:2)라는 주제로 사랑부실에서 배워
진 천국잔치인 사랑부수련회에서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을 대할 때의 기쁨이란
무어라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기도로 시작된 천국잔치에 우리 사랑부 친구들 모
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묵상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고 기쁨으로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는 예배시간이었습니다. 새로운 찬양
과 율동을 배우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레크리에
이션, 성령의 열매, 성극 등 많은 은혜로운 프로그램 속에서 자에게 아낌과 눈물
나는 프로그램은 '성령의 열매' 시간이었습니다. 몸이 아픈 친구들, 어디로 팔지
모르는 친구들과 10개 반이 5개 조로 나뉘어졌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체험
하는 코스에서 다리가 아픈 친구가 있어 세족식에 참여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
습니다. 그러나 예쁜 천국의 발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씻겨 줄 기회가 다시 오
리라 믿습시다.

성극을 통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택하신 것임을 기억하고, 나를 소중히 불러
주신 주님 보시기에 예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결심을 갖게 해 준 천국잔치! 선
생님들의 소중한 사랑의 손길을 느꼈던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먹으며 기뻐하는
친구들을 보며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기쁨에 겨워졌습니다. 주
일에 사랑부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헤어진 은혜로운 천국잔치였음을 주
님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다음엔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프로그램들 만들자고
의논하는 청년 선생님의 모습이 너무 뿌듯하여 저 역시 기쁨(함 3:18)에 몸 둘
바를 몰랐습니다. 2008년 특별한 사랑부수련회를 경험하게 하신 주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김진곤(교사, 사랑부)

희 개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교만한 자에게 교사의 소명을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증동부에서 봉사한 지 처음이라 교사로서 부족함과 교만이
많은을 깨닫게 해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총력 전도주일을 준비하기 위해 태신
자를 작성하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가면서 저는 전도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실감하였
습니다. 그러나 학생들과 같이 분반공부시간에 주님께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실현한다면 꼭 전도가 힘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시다. 학생들은 주일아침에
일찍 일어나기를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태신자 학생들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술직히 귀찮아요. 선생님!"이라는 어느 학생의 한 마디가 저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교구에서 초창전도주일이 되면 '전도사님, 지역장님을 비롯하여 교구 일
꾼들이 하겠지.'라고 생각했습시다. 저 역시 귀찮아하는 마음이 더 컸습시다. 저
의 불순종과 연약한 믿음을 회개합니다. 저 역시 살아계신 주님을 온전히 전하지
도 믿지도 못하면서 학생들에게만 '말려라. 전도해라.'고 했습시다. 십자가의 보
혈로 저의 죄를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과 실랑이 때를 맞으
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능부가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김진홍(성도, 16교구)

[제목: 영혼 구원]

인간에 가장중요한 것은 생명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 밖에 없는 생명을
주셨다. 생명은 두 가지가 있다. 한가자는
지옥에 가게될 허두한 생명, 두번째는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생명 이렇게!
두가지가 있다. 사람들은 구원 받은 생명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해야 한다. 생명이란 영혼을
구원 받는다는 뜻이다. 주변에 사람들이
예수를 전도할수 있게 하자. 그리고
밤마다 예수님께 기도하자! 예수를
안 믿는 친구 있다면 지킬래도
말아서 생명을 구원 받고 천국이
갈 수 있게 하자. 지옥에가는
나쁜 어린이는 절대로
되지 말자!



임채우(유년부)

예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저는 10년이나 교회에 다녔지만 자기 부인이 십자가에 대해 잘 몰랐습시다. 주일마
다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몰라도 그냥 지루하게만 들렸습시다. 그러다가 얼마 전에 이사
를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어 너무
나 감사하고 기쁜 마음을 전하고 싶습시다.

하루 동안 햇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지하 단칸방에 3년을 살다가 지난 6월에 6층 아파트
로 이사를 했습시다. 작은 임대아파트이지만 방도 두 칸이나 되고, 보충금도 싸고 관리
비도 싸서 가난한 우리 부부에게는 정말 좋은 집입니다. 이사하고 며칠 후에 목사님과 집
사님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아내는 훌쩍훌쩍 눈물을 닦다가 나중에선 얼굴을 가리고
울어보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요 14:1)고 하시 뒤 "너희를 위하여 살 곳을 미리 준비하러 간
다."고 말씀하셨습니다.(요 14:2~3)

지하 단칸방에 비하면 6층 아파트가 너무 좋듯이,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 천국의 집은
6층 아파트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을 것입니다. 특히 그 좋은 집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얼
마니 죄송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십자가는 곧 죽음이니 나도 예수님을 따라 죽어야
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서 이 지 많은 인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나
의 손과 발과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장재전(성도, 예배다부)

산 소망을 가지고 본향을 향하여



김한기(정로, 소망부장)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이다 그의 땅으로 금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둬나케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찢고 덮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벧전 1:3~4) 소망부는 산 소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산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성도가 영원히 누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소망부는 매주일 12시 15분에서 13시 15분까지 갈릴릴에서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59명의 선행선도와 500여 명의 어르신들이 주님의 은사로 믿음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출석하시는 어

르신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예전에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에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하셨던 분들입니다. 이제 육신의 장막이 쇠하여지고, 약해져서 거동이 불편하고 모든 것이 전과 같지 않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과 믿음을 사모하는 열정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듯합니다. 양쪽을 의지하면서도 주일예배를 드린 후에 충천도사관에 들리신 후 소망부 집회에 꼭 참석하시는 어르신, 교구를 통하여 단기선교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어르신들, 예루살렘 찬양대, 소망부 찬양대에서 주님께 찬양드리며 감사하는 어르신들, 성경암송대회, 찬송가부르기대회 등 소망부 모든 행사에 젊은이들 못지않게 최선을 다하는 어르신들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골 3:12)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줄 즉 위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2~14)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부르는 그날까지 달려가는 소망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사이요, 사랑이기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70명씩 이사를 지내 오시면서 쌓아놓은 경험, 지식, 부, 명예, 권세, 자부심이 있습니다. 좋기 어려운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난을 좇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소망부에서는 모든 어르신들이 믿음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자손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 자손들을 천국일꾼으로 키우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갈 2:20)는 말씀이 산 소망을 간직한 소망부의 신앙고백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

노령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의 나이 백 세가 되더라도 여호와께 드리는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고령자들만으로 찬양대를 만들어 찬양을 하게 하신 주님, 금요찬양집회 전속인 예루살렘 찬양대원으로 부름을 받게 되어 감격과 감사에 찬양을 올리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휘자는 찬양대원들에게 가사를 모두 외게 하고, 찬양을 드릴 때에 발음을 또박또박 힘주어 부르게 하여, 먼 곳에 앉아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가사가 쉽게 전달되도록 힘씁니다. 또한 기도와 같은 찬양 가사가 부르는 찬양대원들이나 듣는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들려질 때 큰 은혜가 된다고 지휘자는 거듭 당부합니다. 또한 찬송곡마다 음의 강약과 음악적 제요소를 잘 지기고, 호흡을 조절하여 부르게 하니, 젊은 세대가 아닌 노령자들의 합창임에도 음악적 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 2주년을 맞는 예루살렘 찬양대가 날이 갈수록 음악이 풍성해지는 것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위임목사님을 통하여 신령한 찬양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성령의 감화 가운데로 눈물을 흘리며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찬양대가 생기기 전부터 위임목사님의 찬양으로 충현의 성도들을 이끌어 가심은 분명 성령의 힘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정례에 새 예루살렘 찬양대의 그림자로 보여주는 것으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참 소망은 그곳, 거룩한 그곳을 갈망하게 하심으로 확신을 갖게 합니다. 전문인원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대륙도 부를 수 있다는 사실에 오직 감격할 뿐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우리의 무릎을 꿇고 위임목사님을 통해 내려주신 두 세계의 깊은 뜻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수단이 다 하기 전에 인생의 벼랑 끝에서,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의 때가 바로 지금인 줄 알고 두 세계의 갈릴릴에서 깨어 철저히 자기 부인을 결단합니다. 세상의 유혹을 단호하게 끊을 것을 결단하는 우리 예루살렘 찬양대원들, 아님 노령자들이 회개할 때가 바로 ‘지금’ 이라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어 불들어 주시고 순종과 겸손으로 교만을 멀리하고, 받은 은혜와 지금까지 부족함 없이 주신 많은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신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벼랑 끝에 서서 죽음만을 기다리는 불신의 노령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인술(은회안수집사, 예루살렘 찬양대)

심자의 길

예수님이 하신다

이제 환한 가을의 골짜기에 서 있다. 여름 한 철 태양 밑에 풀 익은 곡식들을 고개를 숙이고, 나무마다 낙엽이 허락하신 풍성한 열매로 가득하다. 크리스마스 계절의 계절인가 보다. 그런데 나의 신앙은 어떠한가?

언제인가 주일4부예배가 진행중일 때 본당예배를 살피는 나날이 적었다. 그런데 적지 않은 성도들이 홀리본 앞에서 서 있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배에 늦은 것이다. 때때로 예배는 순서에 따라 대외기도가 진행중이어서 성도들이 예배사로 들어가지 못한 채 밖에 서서 기도하느라 드리고 있었다. 물론 이들은 나름대로 늦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피치 못할 사정과 교회의 다른 일을 돌보느라 늦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배에 늦었다는 것이다. 이것까지 핑계를 수 있을까?

불명의 처녀가 신앙을 기다리다 있었다. 그런데 예행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신앙이 오지 않았다. 그녀들은 모두 지치고, 고통받았다. 이윽고 신앙이 왔다는 소리에 불명의 처녀들은 신앙을 맞으러 나왔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다섯 명의 처녀는 신앙을 맞으러 나갈 등과 동물을 준비했지만, 다른 처녀들은 등만 준비했을 뿐 여분의 기를 준비하지 않았다. 기를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은 딱한 사정을 신앙에게 호소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는 이것이다. “때여 이르라 너희는 그들과 그 때를 알지 못하리라”(마 25:13)

우리는 심사를 반박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다. 의식과 무의식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심과プライ드 자신의 실체를 부인한다. 때때로 변명하고 핑계를 만든다.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 실패로 끝난다. 이와 같은 죄의 순환고리를 십자가로 깨트리자. 변명과 핑계, 불평과 원망을 멈추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길을 걷자. 영적 관에서 깨어 성령의 열매를 맺어보자. 주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실천하자. 우리는 할 수 있다. 아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신다. “나서너와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시기”(요일 4:4)

(편곡)



♡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1668	박석철	11	소년부	박석철(11)
1669	김민준	22	청년2부	김명화(22)

* 중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교회소식

모임

1. 권사 연합 월례회
일시 : 24일(수) 12:40
장소 : 갈릴리움
2. 남·녀 전도회 회장 월례회
일시 : 28일(다음 주일) 15:10
장소 : 1지회-405호 2지회-408호

별체

1. 홍순환 태고사당(사경정) 집사자 모친 - 유배
제 3차 지의 장모, 15교구 2구(2주) 11월 별
세, 13일 경제.
2. 김승균 안수습사(사경정) 집사의 남편 - 김
성 조도의 부친, 3교구 2구(2주) 12월 별
세, 15일 경제.
3. 김경환 성도암의 집사의 모친 - 김필숙 권
사의 사모, 24교구 13분(1구역) 12월 별세,
16일 경제.
- 결 론**
1. 이경춘 군(이방원 씨 - 김화자 청도의 아들,
7교구와 이희화 양친이제 - 김경삼 씨
의 딸) 27교구 13분, 18교구 하부수 2교구
2. 이영환 군(이제현 청도 - 최경춘 청도의 아들
며, 태고)과 고규정 장교(고정 - 안순옥
권사의 딸, 5교구) 27교구 13분 1630, 장복 낙
과 웨트루프를 1종 안으로 616호

- | | | |
|---------|----------|---------|
| | 22 (월) | 23 (수) |
| 서곡지/기도지 | 기서과/자치청R | 옥수시/... |

**충현동산
평토장 안내**

충현동산 평토장
신청을 받고 있습

현재 충현동산을 이용하고 계신 분들 중에
봉분을 만들지 않고 평평하게 매장하는 방식인
평토장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분들의 신청을 받

*문의 : 충현동산 및 교회사무국(#472, 김병수 집사)

15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 9월 21일(오늘), 14:00
장 소 : 본당 지하1층 아멘홀

18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시 : 9월 21일(오늘), 14:00
장소 : 제2교육관 3층

14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 9월 28일(다음 주일), 1
장 소 : 본당1층 베타니홀

19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 9월 28일(다음 주일),
장 소 : 제2교육관 2층 A홀

20교구 총동원 전도집회

일 시 : 9월 28일(다음 주일)
장 소 : 갈릴리움

청년2부 새생명 초청 전도집회

일 시 : 9월 28일(다음 주일),
장 소 : 제2교육관 2층

2008년 하반기 수화교실 개강

일 시 : 9월 21일~12월 21일(14주간), 매주일 15:10~16:30 장 소 : 제2교육관 1층 에바다부실

새벽기도회 (9/22~9/28)

	22 (월)	23 (화)	24 (수)	25 (목)	26 (금)	27 (토)	28 (주일)
설교자/기도자	김성관/장철환B	윤수일/한홍연	유현철/조계열	탁정현/이진수	유재진/김홍일	최성득/강옥련	김환수/윤인숙
설교본문	막 7:24-30	골 1:14-21	골 1:22-25	골 12:1-16	골 12:17-28	골 13:1-16	골 13:17-23

예배 담당 (9/24~9/28)

날짜	예배	설교	사회	기도	찬양
9/24	수요 I	어린이 (age 5-6-14) 김성관 목사	탁정현	서석주	주 달려 죽은 십자가 (호산나 찬양대)
9/24	수요 II	생명의 책 (황상 191-8) 박진기 목사	정민연	김영연	내 맘이 다짐되어 (실로암 찬양대)
9/26	금요일향	김성관 목사	이재영	예수님향 찬양대 / 들꽃이 감추며 / 할렐루야 제1 여성중창단	
9/28	주일 I	표 적 (제 12-38) 태성진 목사	김근영	김원영	(예배 전 찬양)
9/28	주일 II	표 적 (제 12-38) 하종철 목사	이성진	정선원	하나님의 이름이 외 / 임마누엘 오케스트라
9/28	주일 III	표 적 (제 12-38) 김진관 목사	장 훈	유승민	정경하게 하는 성이 외 / 소로니스트 여성중창(할렐루야 찬양대)
9/28	주일 IV	표 적 (제 12-38) 김준희 목사	최성동	정길현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외 / 아멘 오케스트라
9/28	주일 V	표 적 (제 12-38) 최광진 목사	강명득	신영철	나의 믿음 약함 외 / 소로니스트 김진우(뱌엘 찬양대 솔로리스트)
9/28	주일 VI	이 날은 예수 (행 1:11) 김성관 목사	유원철	이창희	뱌엘 혼성중창단 / 호산나 찬양대 - 10곡구

9월 충현 기도의 창

- ① 교회의 기쁨과 삼급(참 15:1) 되시는 주님을 믿으므로 자기를 부린다고 영원의 세례(마 18:36)를 받게 되나니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신자의 복을 행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든 위임자와 신화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시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소서.
-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눅 19:10)으로 십자가의 복을 증언하는 가난한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 ⑤ 1: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거둔다 보람의 복음을 전하는 중언들이 되게 하시며 예수님뿐 한 양떼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십자가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 ⑦ 충헌의 제단(유지·동산·복지원)이 복음을 전하는 데 하나되되 현재 주전 중언 양로원, 남급시설 건립과 수양관 공사가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예배 및 집회 안내

구 분		시 간
주일예배	I	오전 7:00
	II	오전 9:00
	III	오전 11:00 (수화, 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IV	오후 1:00(외국어 동시통역 예배)
	V	오후 3:00 (젊은이가 드리는 예배)
주일찬양예배		오후 5:00
수 요 예 배	I 오전 11:00 II 저녁 7:30	
금요일양심집회	저녁 7:30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00	

구분	시간	장소
영아부	11:00~12:00	제1교육관 110호
유아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치부	오전 10:50	제1교육관 201호
유년부	오전 10:30	제1교육관 307호
초등부	오전 10:30	제2교육관 407호
소년부	오전 10:30	제2교육관 507호
중등1부	오전 9:00	제1교육관 301호
중등2부	오전 9:00	제1교육관 401호
중등3부	오전 9:00	제1교육관 501호
고등부	오전 11:00	제2교육관 4층
대학부	(토) 오후 2:30	제2교육관 4층
청년1부	(토) 오후 5:00	제2교육관 4층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소요금	오전 11:00 ~	오전 10:00 분당 일출 출발
금요철야	저녁 11:00 ~	금요일장비회 후방열 앞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외부 배려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 및 우스어 등 오로 14가지의 주일 외부 배려는 스키장, 호텔, 중국어, 몽골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로 통역 가능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even O'Clock Restaurant, and St Lanki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lso available at the One O'Clock Service, Service,

분	시 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2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3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2교육관 307호
4부	오후 3:10	배 다 니 홀
광복	오후 12:15	다 갈 리 홀
광복	오전 11:00	복자관 지하1층
다부	오전 9:00(학생) 오전 1:00(성인)	제2교육관 1층
다부	(주)연호 7:00 ~ 8:00 (관) 저녁 7:00 ~ 저녁 9:30	선교관 1층
양복부	오전 12:15	배 다 니 홀
연인교부	오전 11:00	아 멘 홀
연인교부	주요교육관	제3교육관 107호
연인교부	주요교육관	주요교육관

성 · 기 · 는 · 본 · 들

■ 위임목사 김성관

[illegible]